

(처음)

안녕하십니까? 서베이 캡스톤 디자인 실습 고대인의 지출 전쟁 고지전 팀의 남정재, 오해성, 정용곤입니다. 저희의 서베이 주제는 대학생 소비 지출 실태 조사입니다.

(목차)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로 개요, 표본설계, 설문도구, 코딩, 신뢰도 검토, 분석, 토의 및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주제) ppt 그대로 설명

(연구 배경)

다음은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과 소비지출간의 관련된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의 소비지출의 한계점, 밀레니엄 세대의 소비지출에 관한 고충, 월세와 같은 주거환경적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현재 소비지출 실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에 대해 저희는 대학생들의 소비지출 양태를 조사하고 소비지출에 대한 의식을 비교하고자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출처는 뒤쪽 참고 문헌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설계-논리적 근거) ppt 그대로 설명

(표본 설계-할당 추출법)

저희는 할당 추출법을 토대로 성별, 학년별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학생 비율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였습니다. (표 수치 설명 - 총 100%)

(설문 도구)

저희는 설문지 구성표를 이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표 설명] 이를 토대로 저희가 구성한 설문지는 이렇습니다.

[설문지 창 띄우기]

[설문지 크게 분야별로 설명]

저희는 1차 발표 피드백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술형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보기로 선정하였습니다.

설문지 분야들 중 소비지출 성향에 대한 질문 항목은 학생의 소비주의적 성향과 영향 요인이라는 대전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논문집을 참고하여 성향 조사를 위한 보기항목을 제작하였습니다.

소비지출 분야에 대한 질문 항목은 코시스 국가통계표 중 '전국 소비자 동향 항목별 조사'를 토대로 분야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첨가하여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발췌한 '2019 20대 소비지출 패턴 및 성향 조사'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2019 한국인의 소비 여가생활'을 참고하여 이와 같은 설문지를 제작하는 데에 참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쪽 참고 문헌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 폼 창 띄우기]

저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기 위해 구글 설문지 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서베이 설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구글 설문지 폼 설명 - 질문 창, 응답 창]

(코딩)

다음으로 저희가 설계한 코드북과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북을 띄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칼럼, 개념, 문항, 내용, 변수명을 칼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개념’으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개의 개념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때 소비 성향에 대한 개념은 다시 6개의 하위개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설문 번호에 대해 변수명을 A1 소비지출 수준부터 F6 인적사항까지 부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해당 질문에 대한 보기로 보기번호를 1부터 차례대로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데이터 설정과 분석을 하는데 사용한 SAS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AS 코드창을 띄운다.]

먼저, 온라인 서베이 데이터를 엑셀 csv 파일로 받은 후 숫자를 부여하여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SAS에서 데이터를 불러 proc format으로 변수명과 보기번호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블작업을 통하여 데이터를 더 알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이후로 각자 역할을 맡아 빈도분석, 동질성검정, 신뢰도검정, 요인분석, 점수화, 분산분석 이러한 식으로 코딩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뢰도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검토)

신뢰도 검토는 proc corr 명령을 사용하여 크론바흐의 알파계수와 피어슨 상관계수의 결과표를 보고 소비지출 성향의 변수간 내적일관성 및 재현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소비지출 성향의 측정가능변수로는 정체성 형성 도구로서의 소비, 타인 지향적 소비, 외모 지향적 소비, 차별화 기제로서의 소비, 감각적 소비, 소비 지향적 소비가 있습니다. 위 개념은 모두 리커트 4점 척도로써 측정되었습니다.

먼저, 정체성 형성 도구로서의 소비지출 성향 정도입니다. 정체성 형성 도구로서의 소비지출 성향 정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계수의 값을 구한 결과 0.655976의 신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정체성 형성 도구로서의 소비지출 성향 정도’라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자기중심적 심리, 유명상표, 사회적 지위, 소외감으로 4가지 변수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타인 지향적 소비지출 성향 정도입니다. 크론바흐 알파계수의 값을 구한 결과 0.639724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시선의식, 주위사람 스타일, 유행하는 물건 이렇게 3가지 변수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모 지향적 소비지출 성향 정도입니다. 크론바흐 알파계수의 값을 구한 결과 0.582284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변수 c3_3 즉, 성형수술을 제거하면 0.610214로 전보다 증가함을 알 수 있었기에 이 변수를 제거하였습니다. 변수를 제거하고 나서 크론바흐 알파계수 0.610214의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울림 정도와 체중(몸매) 이렇게 2가지 변수가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1_1 자기중심적 심리부터 c6_5 라이프스타일까지 전체적인 신뢰도 검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란부분은 음의 척도를 갖는 상관계수 값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소비성향]에 대한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의 값을 구한 결과 0.824498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 C6_1 친환경도를 제거하면 Cronbach의 α 계수의 값이 0.830258로 전보다 증가하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음의 척도를 가지기에 이 변수를 제거하였습니다.

친환경도 변수를 제거한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C6_1(친환경도)를 제외한 후 Cronbach의 α 계수의 값을 구한 결과 0.830285의 신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변수 C6_3 일회용 용기를 제거하면 Cronbach의 α 계수의 값이 0.832256으로 전보다 증가하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음의 척도를 가지기에 이 변수를 제거하였습니다.

두 변수를 제거한 후의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C6_1(친환경도)와 C6_3(일회용 용기)을 제외한 후 Cronbach의 α 계수의 값을 구한 결과 0.832256의 신뢰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음의 척도를 지닌 변수들이 아직 있어 이들을 제외한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음의 척도를 가지는 변수를 제외한 결과입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음의 척도를 지닌 변수들을 제외한 후 Cronbach의 α 계수는 0.82758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변수 C6_4 경제적 여유를 제거하면 Cronbach의 α 계수의 값이 0.830784로 전보다 증가하지만, 피어슨 상관계수에서 더 이상 음의 척도를 가진 변수가 없으므로 신뢰도 분석을 마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5, 6번의 개념들에 대한 신뢰도 검정을 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계수 값이 0.6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 개념에 대한 보기문항 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재현가능성 또한 낮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여 저희는 4, 5, 6번 개념들에 대한 결과는 생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토의해본 결과, 일단 4, 5, 6번에 대한 보기문항 수가 적었고 현재 응답을 받은 표본의 수가 저희가 목표했던 응답자 수에 비교적 적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결과 값이 작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추후 제출할 최종보고서 작성하는 것에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